

『루크리스의 능욕』(*The Rape of Lucrece*) : 여성의 몸과 ‘명예’

김수진

I.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루크리스의 능욕』(*The Rape of Lucrece*)에서 명예의 문제는 시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다. 이 작품은 형식상 설화시이지만 내용상 비극적 드라마의 성격을 지닌다. 등장인물의 개인적 고통이나 도덕적 의식의 타락은 곧바로 한 공동체 전체의 명예, 신뢰, 그리고 존폐의 문제와 직결되어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비너스와 아도니스』(*Venus and Adonis*)의 현사에서 『루크리스의 능욕』의 시작(詩作)을 암시하며 “맹세하건데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더 장중한 노고로 당신께 보답하겠나이다(vow to take advantage of all idle hours, till I have honoured you with some graver labour).”라고 말했듯이, 그는 이 작품에서 정치적 군사적 명예, 인간이 갖추어야 할 미덕과 공동체적 가치관을 얘기하고자 했다. 이 시가 단지 한 정숙한 귀족 부인의 파멸과 그녀를 파멸시키는 권력자의 모습을 중심으로 개인의 비극적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공동체 내지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프린스(Prince)는 『비너스와 아도니스』와 『루크리스의 능욕』를 비교하면서 전자는 도덕적 목적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긴장감에서 벗어난 기쁨을 담고 있으며 후자는 엄격한 도덕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욕정을 실행한 사례를 들려주고 이에 대한 교훈을 강요한다고 적고 있다(82). 또한 그는 이 시가 ‘보다 더 장중한 시’라고 말하는 근거를 시적 인물들의 비극적 결말과 함께 작가가 도덕적 교훈을 훈계하고 있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 시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철저히 개인적인 성적 욕망에서 출발하지만 그 사적 욕망이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구체화되는 순간부터 권력자, 통치자들의 명예와 자질의 문제로 옮겨간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비극의 중심이 사건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루크리스(Lucrece)에게 있는지, 또한 그녀의 명예는 정녕 회복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시는 루크리스가 무고하게 겪게 되는 능욕과 죽음을 다루면서, 이 비극적 사건을 겪기 전의 그녀와 후의 그녀가 가지는 완전한 아름다움과 미덕, 고결성과 명예에 대해 노래한다. 하지만 그녀가 지니고 있는 이상적인 가치는 그녀 자신의 인격적인 완성을 향해가는 보편적인 개념의 가치라고 보기 힘들다. 타르킨(Tarquin)에게 짓밟힌 자신의 정숙함과 더럽혀진 명예의 회복을 갈구하며 이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자살을 선택하지만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회복되는 명예가 사후의 루크리스가 누리게 될 몫인지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

셰익스피어는 남성들에 의해 가늠되는 여성의 미덕과 가치를 같은 남성 입장에서 폄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남성들의 권위도 적절히 해체시키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논문은 루크리스의 명예가 남성세계의 언어와 권력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밀랍 같은 주조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과 그녀의 명예는 그녀가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지키고자 한 것이지만 결국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상응으로 남성의 권위와 명예도 그들의 욕심에 반비례하여 해체되고 있는 과정을 살피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

타르킨의 범법적이고 명예에 반하는 행위는 한 개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종국에는 자신의 과멸을 야기하는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타르킨이 루크리스에 대한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게 된 계기는 콜라티누스(Collatinus)의 경솔한 아내자랑에서 비롯되었다. 로마의 귀족이자 군인인 이들은 전쟁터의 막사에서 재미삼아 자신들의 아내를 서로 과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에게 아내라는 여성들이 인격체로 존재하기 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소유물의 개념

으로 자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물화된 자산의 개념은 이 시의 다음 부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셰익스피어는 콜라티누스의 경솔하고 현명하지 못한 면을 지적하면서 그를 “공개자(the publisher)”라고 명명한다. 하지만 시인 스스로도 아름답고 정숙한 아내를 “홀륭한 보석(rich jewel)”에 비유하고, 그런 보석은 자신만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 비밀스럽게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훈계하는 것은 여성의 물화된 개념에 편승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비교를 불허하는

그토록 홀륭한 것에 대한 시기심을 거들먹거리며 불리일으켰네,
그의 거만한 생각을, 천한 자들이 자랑을 하다니
저자들의 상관들도 누리지 못하는 금쪽같은 행운을.

Perchance that envy of so rich a thing,

Braving compare, disdainfully did sting

His high-pitch'd thoughts, that meaner men should vaunt

That golden hap which their superiors want. (39-40)

콜라티누스의 아내 루크리스는 보석내지는 “물건(a thing)”으로 불리워지며 남성들, 특히 로마의 지배계층의 남성들에게는 소장할 가치가 있는 값진 보배로 전락한다. 아내들의 정숙함이나 아름다움 또한 남성들의 지위를 더욱 빛내주는 부차적인 가치일 뿐 여성들이 고유하게 지닌 성격이나 특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만큼 완벽한 아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값진 물건에 대한 소유권으로 해석되고 이것은 다시금 소유자의 지위와 권위, 명예와 부를 재확인시켜준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콜라티누스에게 가장 이상적인 아내가 있다는 사실은 타르킨에게는 그가 그런 귀중한 자산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의 문제로 변질된다. 그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자가 그런 황금 같은 행운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분노를 느낀다. 왕의 후계자로서 자신이 만끽해야 할 행복을 콜라티누스가 부당하게 누리고 있다는 생각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급박한 사실마저도 잊게 만들었고, 루크리스에 대한 욕정을 안고 로마로 잠입을 감행하게 만든다. 콜라티누스의 자랑과 이에 대해 타르킨이 느낀 적대감에 대해 존 캐리건(John Kerrigan)은 이렇게 적고 있다.

자신의 아내의 미덕을 자랑하면서 콜라틴은 그것을 타르킨의 제왕의 자랑거리 수위까지 올려놓았고 자신의 가정 내의 절조를 누설하고 있음을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당대의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시가 펼쳐지면서 나타나는 ‘최상’이란 단어의 이차적 의미 또한 중요하다. 당대의 ‘최상’이라는 어휘는 ‘문장기가 나타내는 특정한 지위를 갖는 고위 인사’의 뜻도 있기 때문에 콜라틴이 아내의 ‘최상’을 자랑하는 것은 그가 자기 적수가 느낄 기분을 알면서 아내를 자랑하는 것이다.

By vaunting his wife's virtue, Shakespeare implies, Collatine puts it on a level with Tarquin's regal pride, and betrays the principles associated for Elizabethan readers with his house. But a secondary sense of the word, emerging as the poem unfolds, is at least as important. In the period, 'sovereignty' could mean 'the dignity attaching to certain dispositions of heraldic bearings', and for Collatine to 'boast' his wife's 'sovereignty' is for him to blazon her in ways which tellingly anticipate perceptions of his enemy. (106)

타르킨은 아내의 ‘비길 데 없음(sovereignty)’을 자랑하는 콜라티누스의 태도를 그가 군주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우월감을 의도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토록 드높고 자랑삼을 정도의 그의 행운을 생각하면
왕들이 보다 더 명망 있는 여인을 아내 삼을 수는 있어도

그 비할 데 없는 여인은 왕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리.
Reck'ning his fortune at such high proud rate
That kings might be espoused to more fame,
But king nor peer to such a peerless dame. (19-21)

콜라티누스는 타르킨의 분노를 자극할 만한 표현을 구사하면서 그의 권위의 식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물화시킴으로써 이를 자신의 지위와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에 대한 타르킨의 대응은 루크리스를 자신의 우월한 힘을 발휘하여 빼앗아 올 수 있는 전리품 정도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했다는 타르킨의 피해의식이 어디까지나 타르킨 혼자만의 망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것은 시인이 루크리스에 대한 그의 집착을 도덕적 타락의 전형으로 비난하고 있는 부분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탐욕스런 인간이 욕심을 일으키고 온갖 수단을 이용해 욕심을 채우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욕심에 시달려 끊임없이 탐욕의 허기에 시달릴 때 도덕적 타락은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이 가지는 욕심의 속성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욕심이 많은 자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취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낭비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수중에서 놓치고 만다;
그래서 더 많이 바랄수록 단지 더 줄어들 뿐,
혹 더 언더라도, 넘치는 이득은
오직 질리게 할 뿐, 그래서 그 비애감만 유지되어
그들은 허기와 과식을 오가며 망가지리라.

Those that much covet are with gain so fond
That what they have not, that which they possess
They scatter and unloose it from their bond;
And so by hoping more they have but less,

Or gaining more, the profit of excess
 Is but to surfeit, and such griefs sustain,
 That they prove bankrout in this poor rich again.

(134-140)

이 도덕적 훈계는 그리스 신화 속의 탄탈루스를 연상시키는데 그는 채울 수 없는 허기 때문에 마침내 자기 살을 뜯어먹고 죽은 자이다. 신화 속에서 그가 느끼는 배고픔은 현실세계에서 인간이 갖는 욕망의 허기를 상징한다. 시인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뒤로한 채,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며 그것을 취하더라도 결국 다시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피폐한 영혼이 되고 만다고 지적한다. 타르킨의 욕망은 결국 정욕이라 할 수 있으며, 맹목적인 정욕의 추구에 따르는 위험성을 셰익스피어는 소네트(Sonnets)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정욕은
 맹세를 저버리고, 흉악하고, 잔인하고, 비난으로 가득 차 있고
 미개하고, 과격하고, 무례하고, 잔인하고, 못 믿겠고,
 채워지자마자 곧장 경멸이 생겨나고,
 이성을 떠나 추구되고, 충족 되자마자,
 이성을 떠나 미움 받고, 마치 삼켜진 미끼처럼,
 삼킨 사람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놓여진;
 추구하는 동안도 미치고, 소유해도 그렇다네,
 가졌었더라도, 지금 갖고 있더라도, 가지려는 중이라도, 극도로
 경험할 때는 축복이요, 경험하고 나면, 진정한 고통이,
 실행하기 전까진, 앞에 놓인 기쁨, 그 뒤엔 악몽 뿐.
 세상이 이 모든 사실을 알지만, 아무도 잘 모른다네.
 남성들을 이런 지옥으로 이끄는 천국을 물리쳐야하는 것을.

... lust

Is perjured, murd'rous, bloody, full of blame,
 Savage, extreme, rude, cruel, not to trust,

Enjoyed no sooner but despised straight,
Past reason hunted, and no sooner had,
Past reason hated as a swallowed bait,
On purpose laid to make the taker mad;
Mad in pursuit, and in possession so,
Had, having, and in question to have, extreme,
A bliss in proof, and proved, a very woe,
Before, a joy proposed, behind, a dream.

All this the world well knows, yet none knows well
To shun the heav'n that leads men to this hell. (129)

셰익스피어는 정욕을 채워지자마자 경멸을 느끼고 해악인줄 알면서도 삼켜 버린 미끼 때문에 정욕이 끊고 이 때문에 미치게 되고, 정욕을 실현시켜도 미치게 되는 위험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욕을 진정시킬 수단인 이성과 명예욕은 너무나 미약하다. 위 소네트에 정의된 정욕은 이 시의 악한인 타르킨이 품고 있는 정욕을 너무도 잘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이 욕망은 집착이고 그 허기는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허상이라고 혼계할지라도, 타르킨에게는 소용없는 가르침이 되고, 욕망에 굶주린 악이 결국 타르킨을 파멸시키리라는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타르킨에게 명예는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잠시 저당 잡힐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욕망, 특히 성적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도덕적 규범을 군인의 명예와 이에 수반되는 공적인 사명감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의 권위와 지위는 루크리스의 집을 불시에 방문할 수 있는 명분으로 쓰였고 그녀의 호의적인 환대를 끌어내는 수단이 되었다. 또한 그가 그녀의 아름다움과 선량함을 재확인하며 즐거운 대화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도 콜라티누스가 군인으로서 지닌 명예를 칭송함으로써 가능했다. 이와 같이 타르킨에게 애초부터 명예라는 것은 수단과 매개 역할의 가치로 존재할 뿐이었다. 따라서 명예가 지극한 절제와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내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니기 때문에, 능욕의 순간에 루크리스가 이를 막고자 명예문제를 계속 호소하는 것은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다.

루크리스를 범하기 직전 타르킨의 독백에서, 그는 자신에게 닥쳐올 수치와 불명예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명예를 수단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 자신의 욕망실현이 불러올 크나큰 불행과 콜라티누스가 친구이며 친족이기 때문에 더욱 지탄받을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루크리스에 대한 타르킨의 정욕은 전쟁과 군사의 이미지로 격상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욕정은 나의 장군이라네, 그리고 그는 이끌지;
 그의 화려한 깃발이 펼쳐지면,
 겁쟁이도 싸우러 나서고 더 이상 겁먹지 않으리.
 Affection is my captain, and he leadth;
 And when his gaudy banner is display'd,
 The coward fights, and will not be dismay'd. (271-3)

욕망은 나의 기수, 아름다움은 나의 전리품이리;
 그러한 보물이 있는 곳에 가라앉는 걸 누가 두려워하리?
 Desire my pilot is, beauty my prize;
 Then who fears sinking where such treasure lies?
 (279-80)

그는 닥쳐올 불명예나 수치심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낱 나약한 자들의 변명이며 핑계라고 치부하며 정욕의 지휘아래 훌륭히 싸울 것을 다짐한다. 그 동안의 절제와 근심은 어린아이의 두려움이었고, 망설이며 사색하던 이성엔 전투력을 상실한 노인의 그것이 된다. 타르킨은 이 모든 것을 떨치고 젊은 군인의 역할을 맡아 욕망의 지휘 아래 싸우고 여인의 아름다움을 전리품으로 취하겠다고 공언한다. 이로서 그는 동료이자 친족인 콜라티누스를 배반하고 왕자이자 군인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저버릴 것을 결단한다. 셰익스피어는 정욕을 품은 그의 모습을 명예를 추구하는 군인의 이미지로 희화화한다. 따라서 타르킨이 명예를 추구할수록 그는 불명예와 치욕을 추구하는 희화적 인물이 된다. “이제 그는 동맹을 맹세하고 이제 공격을 맹세한다(That now he

vows a league, and now invasion).”(287)라는 부분은 타르킨에게 탁상공론을 거부하고 용감하게 진격하는 로마군인의 위용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동시에 그가 악을 철저히 실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타르킨이 루크리스의 침실을 향해 가는 도중 그의 행군을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장애물을 만나는 부분은 전장에서 군인이 겪게 되는 시련과 혹독함에 비유되고 있다. 하지만 그가 겪는 역경은 타르킨을 군사적 기치를 드높이며 출정하는 용맹한 군인으로 만드는 역할에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녀의 침실과 그의 정욕 사이의 자물쇠들은
각기 그에게 강제로 밀려 자신의 걸쇠를 뒤로 밀어버린다.
The locks between her chamber and his will,
each one by him enforc'd , retires his ward; (303)

바람은 그를 못 가게하려 그의 횃불과 싸우고,
횃불의 연기가 그의 얼굴로 불어와,
그의 이 행동을 소멸시키고 있네;
The wind wars with his torch to make him stay,
And blows the smoke of it into his face,
Extinguishing his conduct in this case; (311-3)

불이 밝혀지자마자, 불 빛에 그는 보았네,
바늘이 꽂혀있는 루크리스의 장갑을,
그는 장갑이 놓여있던 골풀에서 장갑을 집어들 때,
잡으려는 순간, 바늘은 그의 손가락을 찌른다.

And being lighted, by the light he spies
Lucretia's glove, wherein her needle sticks;
He takes it from the rushes where it lies,
And gripping it, the needle his finger pricks, (316-22)

그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에 대한 묘사는 타르킨이 추구하는 용맹한 군인의 이미지에 오히려 큰 타격을 준다. 또한 그가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전진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함으로써 영웅의 행동을 희극적 요소로 만드는 의사 서사시(mock-epic) 형식을 취한 패러디이다(박우수 288). 이 장애물들은 방문의 결쇠, 바람, 그리고 바늘이 꽂혀있는 루크리스의 장갑인데 이들은 각기 타르킨의 진격을 막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시인은 이들의 저항을 군인이 겪는 전쟁터에서의 역경으로 비유하고 있다. 방문들의 결쇠는 그에게 길을 내주지 않기 위해 버티다가 마지못해 길을 내주고, 바람은 그를 못 오게 하기 위해 그의 햇불과 한차례 전쟁을 치르고, 장갑은 바늘로 그의 손을 찌른다. 이러한 묘사는 영웅의 용맹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한낱 웃음거리로 만드는 해학적 성격(heroism burlesque)을 띤다. 셰익스피어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Antony and Cleopatra*)에서 안토니(Antony)의 진정한 영웅적 행동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비교해보면 타르킨의 그것과 상당히 대조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옥타비우스:

...예전에 당신이

모데나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거기서 당신이 죽었지
 히르티우스와 판사, 집정관들을, 그리고 당신의 발밑에
 기근이 따랐고, 당신은 그 기근과 싸웠지,
 당신은 귀족답게 자랐지만, 인내심을 갖고,
 미개인들이 겪는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은 마셨지
 말들의 오줌 물과 노랑게 고인 오줌 물을
 짐승들조차 외면하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입은 감히
 가장 야성적인 울타리에 핀 거친 딸기를 먹지 않았
 는가.

그래, 눈이 초원을 하얗게 덮었을 때 숫사슴처럼
 당신은 나무껍질을 먹었지. 알프스 산맥에서
 당신이 인육을 먹었다고 하던데,
 쳐다보기만 해도 몇몇은 죽었다. 그리고 이 역경은—
 지금 말하는 것이 당신의 명예를 훼손시키겠지만—

너무도 군인다워서 당신의 뺨의 살이
움푹해지지도 않았지.

Octavius: ...When thou once
Was beaten from Modena, where thou slew'st
Hirrtius and Pansa, consuls, at thy heel
Did famine follow, whom thou fought'st against,
Though daintily brought up, with patience more
Than savages could suffer. Thou didst drink
The stale of horses and the gilded puddle
Which beasts would cough at. Thy palate then did
deign
The roughest berry on the rudest hedge.
Tea, like the stag when snow the pasture sheets,
The barks of trees thou browsed. On the Alps
It is reported thou didst eat strange flesh,
Which some did die to look on. And all this -
It wounds thine honour that I speak it now -
Was borne so like a soldier that thy cheek
So much as lanked not. (1.4.57-72)

옥타비우스가 회상하는 안토니의 군인다움은 전쟁터에서 겪은 역경을 통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작가의 어떠한 희극적, 의사적 의도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안토니의 군인정신과 위용을 연상시키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타르킨의 역경은 야행성 족제비의 울음소리에 놀라 두려워하거나, 바람 때문에 들고 있던 횃불이 얼굴 쪽으로 향해 뜨거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이듯 시인의 의도적인 희극적 완화장치(comic relief)로 여겨진다. 따라서 두 군인의 역경을 그린 이 뚜렷한 대조는 시인이 타르킨의 권위와 명예의식을 해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배치한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셰익스피어의 이러한 의사적 표현에 대해 조엘 파인맨(Joel

Fineman)은 방해물들이 저항하는 모습을 묘사한 언어들이 정확히 강간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방해물과 이에 대처하는 타르킨의 행위 자체가 이 두 인물 사이에 벌어질 사건에 대해 예측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해물들이 수사적으로 타르킨과 루크리스를 연계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녀의 강한 저항이 그의 능욕의 행위를 재촉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41).

타르킨이 오랜 고심 끝에 만들어낸 자아도취적인 군사적 이미지는 예기치 못한 그의 공격에 놀란 루크리스와의 대화 때에도 계속 유지된다. 무엇 때문에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느냐는 그녀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자 그가 대답한다: “당신의 얼굴색이,
 지금 분노 때문에 백함처럼 창백해진
 그리고 자신의 불명예 때문에 붉어진,
 내게 호소하고 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얘기하는군.
 그 기치아래 내가 성벽을 타고 오르려 하오.
 당신의 한 번도 정복된 적 없던 성을: 잘못된 당신에게 있소,
 당신의 눈이 나의 눈에 당신을 몰래 내다 팔았으니.

Thus he replies: “The colour in thy face,
 That even for anger makes the lily pale
 And the red blush at her own disgrace,
 Shall plead for me and tell my loving tale.
 Under that colour am I come to scale
 Thy never-conquer'd fort: the fault is thine,
 For those thine eyes betray thee unto mine.” (477-83)

루크리스가 물었던 ‘연유(colour)’는 타르킨에게 와서 얼굴에 도는 ‘색조’의 의미가 되는 동시에 군대의 ‘깃발’을 가리키는 군사적 용어로 전환된다. 언어의 다의성을 적극 활용하는 그의 태도에서도 그가 고정적이고 일관적인 개념을 지니고 거기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인간이 아님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

다. 또한 함락된 적이 없는 성벽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전투의 이미지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정욕에 찬 비열한 행동을 군인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처럼 과대포장하려 한다. 그러나 정욕을 채우려는 군인다운 적극성과 단호함과는 달리 이 악행의 잘못을 누구의 것으로 규정하는가의 문제에서는 수동적인 자세를 고수한다. 이미 눈에서 눈으로 애정의 감정을 옮겨놓았다는 점에서 이 행위의 잘못이 그녀에게 있다는 논리는 자신의 과장된 이미지 자체를 스스로 축소해버리는 모순을 보인다. 그가 이성과 욕정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욕정을 택했으며 모든 오명과 치욕을 기꺼이 견뎌냈다고(504행) 말하지만 오욕의 책임은 그녀에게 전가되고 있다.

타르킨은 그녀에게 남편과 아이들의 명예를 볼모삼아 자신의 욕정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은폐하는데 순순히 응할 것을 요구한다. 자신이 그녀의 침실까지 오기위해 버렸던 명예를 루크리스에게는 인내와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야 할 최우선의 것으로 강요하고 남편과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몫마저 떠안게끔 위협한다. 개인이나 가문의 명예를 위협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명예의 중요성을 그만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을 한 가닥 해결의 희망으로 여기고 루크리스는 명예의 문제를 빌어 타르킨을 간절히 만류하려고 노력한다. 일단 명예가 손상되었을 때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 언급하며 신이 그에게 준 지위와 그에 부합하는 모습을 회복하길 루크리스는 간절히 설득하지만 이러한 필사의 노력은 이미 명예를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그에게 무의미할 뿐이다.

타르킨이 도덕적 규범과 명예까지 버리며 최우선시 했던 욕정의 해결이 이루어지자 셰익스피어는 다시금 욕망의 속성을 전면에 부각시킨다.

그는 곧 잃게 될 것을 얻었다.
 이 강제된 동맹은 더 심오한 투쟁을 강요한다;
 이 순간적인 기쁨은 몇 달간의 고통을 낳고;
 이 뜨거운 욕망은 차가운 경멸로 바뀐다.
 순수한 정숙함은 그녀의 보고에서 강탈당했고
 도둑인 정욕은, 예전보다 더 가난해진다.

And he hath won what he would lose again.
 This forced league doth force a further strife;
 This momentary joy breeds months of pain;
 This hot desire converts to cold disdain.
 Pure chastity is rifled of her store,
 And lust the thief, far poorer than before. (688-93)

셰익스피어는 타르킨의 악행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정욕이 지닌 속성을 다시 훈계함으로써 자기절제에 실패한 인간을 꾸짖는다. 즉 셰익스피어는 인간이 정욕은 충족과 동시에 고갈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으로 정욕을 충족시킴으로써 겪게 될 고통을 상기시킨다. 정욕이라는 도둑은 훔칠수록 더 가난해진다고 말하면서 인간이 탄탈로스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그는 한탄한다.

Ⅲ.

타르킨이 떠나버린 후 명예의 문제는 이제 모두 루크리스에게로 넘어왔다. 타르킨이 명예를 대하는 태도는 임의적이고 그 방법은 편의주의에 입각해있다. 그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기꺼이 버렸다가, 루크리스의 침실로 들어가기 위한 행보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천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고, 능욕을 감행하기 직전에는 루크리스의 명예마저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다. 두 시적 인물이 능욕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펼치는 명예에 대한 논쟁에서는 그 합일점을 일궈내지 못하는데 이는 기표와 기의의 현격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루크리스에게 명예라는 것은 기표와 기의가 일치되는 정명(decorum)이며, 언어와 그 대상 사이에 지극히 이상적이고 완벽한 합체를 상징하는 반면, 타르킨에게는 그 괴리가 크며 기표는 일정하지만 기의는 가변적이고 임의적인 허구체이다. 따라서 그녀의 이상적인 기표가 타르킨에게는 여전히 임의적 기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의 성공 가능성은 애초에 거의

없던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경계한 데로 욕망이 실현된 후 곧바로 소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욕망의 세계도 가변적이고 허구적인 것임을 역설한다. 타르킨 스스로 언어의 임의성과 다의성을 즐겨왔고 고정된 의미를 거부한 채 마키아벨리적으로 이기적이고 임기응변식의 의미를 창출하고 부여했던 행위들이 최종적으로 그를 고갈시킨 것이다. 루크리스를 능욕한 뒤 그가 느끼는 후회와 죄책감은 진정으로 명예나 윤리의 개념에서 출발한 뉘우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소진되고 고갈된 모습을 확인하고 느끼는 절망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타르킨의 능욕 이후 혼자 남겨진 루크리스는 자신이 당한 일이 사람들에게 회자되어 애것거리나 오락거리가 될 것을 염려하고 이것이 결국 콜라티니누스 가문에 끼칠 불명예를 염려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남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소임과 최선을 다했음을 주장한다.

아직 나는 당신의 명예의 파괴에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나 당신의 명예를 위해 그를 환대한 것입니다.
당신 있던 곳에서 왔기에 그를 거부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건 그를 경멸하는 처사이니까요.

Yet am I guilty of thy honour's wrack;
Yet for thy honour did I entertain him:
Coming from thee I could not put him back,
For it had been dishonour to disdain him. (841-4)

애초에 타르킨을 환대한 것은 그가 전쟁터에서 남편과 함께 있다 왔기 때문이고 그를 소홀히 대하는 것이 남편의 명예를 해칠 것을 염려해서 한 행동이었다고 말한다. 르네상스의 이태리 인문학자인 스페로니(Speroni)는 루크리스를 ‘불완전한 정숙함(imperfect chastity)’를 지닌 여인이라고 칭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루크리스는 불완전함 정숙함을 지닌 여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타르킨의 공격에 단호히 대처했을 것이다. 그는 진정 정숙한 여인은 굴복하기 전에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루크리스는 마치 난파될 배가 짐들을 바다로 투하하듯 자신의 덕을 포기했다. 타르킨의 욕망을 그녀가 받아들인 것은 강제와 자발 사이의 중간정도의 지점이다.

Lucrece was of 'imperfect chastity' or she would have held fort against the assaults of Tarquin. A truly chaste woman, he assures us, would have died before surrender; but Lucrece abandoned her virtue just as distressed ship jettisons its cargo. Her compliance with the desires of Tarquin was, in fact, an act midway between the forced and the voluntary. (Allen 90, 재인용)

타르킨의 능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강제적인 면과 자발적인 면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페로니는 그녀가 계속적으로 남편의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가문의 몰락에 대한 책임을 험박당하고 있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타르킨은 그녀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거부한다면 한 노예와 그녀의 부정함을 조작할 것이며 결국 콜라티누스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었다. 즉, 스페로니의 시각은 그녀에게 능욕의 허락과 거부가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인식하지 못한 평가이다.

루크리스는 의지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본질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여성의 의지와 그 실천에 대해 자기변론적인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남성들은 화강암, 여성들은 밀랍 같은 마음을 가졌죠,
따라서 그들은 화강암의 의지대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 약한 것은 놀리고, 낫설게 찍어낸 모습은
강제, 사기와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그 사악함의 주인으로 부르지 마세요.

밀랍을 악으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비록 거기에 악의 모습으로 찍혀 나오더라도.

For men have marble, women waxen, minds,
And therefore are they form'd as marble will;
The weak oppress'd, the'impression of strange kinds
Is form'd in them by force, by fraud, or skill.
Then call them not the authors of their ill,
No more than wax shall be accounted evil,
Wherein is stamp'd the semblance off a devil. (1240-6)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은 화강암 같은 굳건한 마음의 소유자이고 여성은 밀랍 같은 존재여서, 화강암이 찍어낸 모습대로 형성되며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다른 모습은 화강암의 강제나 사기 또는 교묘한 기술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그 만들어진 외양은 남성이 만들어주는 데로 부여받은 것이므로 여성이 그 외양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에게 자유의지란 오직 남편의 명예와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사명감을 갖고 이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지만, 그 의지 자체도 남성이 여성에게 주물로 찍어내듯 만들어놓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녀가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그것 또한 남성이 스스로 틀에 넣고 찍어낸 결과물이지 여성이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타르킨이 그녀에게 떠넘기고 간 명예의 문제는 다시 남성인 타르킨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또한 앞으로의 문제들, 복수와 실추된 명예의 회복도 모두 남성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로써 실질적인 복수를 통한 명예의 회복은 남성인 남편에게 남겨진다.

“당신은 나에게 명예로운 맹세를 해야 해요.
'내가 당한 이 부당함'을 신속하게 갚겠다는;
왜냐면 귀중하고 정당한 계획이니까요,
복수심에 불타 부당함을 쫓는 것은;
맹세코 기사들이 불쌍한 여인들의 한을 바로 잡아 주어야지

요.”

“Shall plight your honourable faiths to me,
 With swift pursuit to 'venge this wrong of mine;
 For 'tis a meritorious fair design
 To chase injustice with revengeful arms:
 Knights by their oaths should right poor ladies' harms.”
 (1690-1694)

루크리스가 복수의 맹세를 받아내고 자결함으로써 여성에게 부과된 명예의 유지와 회복의 문제는 남성의 몫으로 남게 된다. 그녀는 이 불명예스러운 사건의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자기에게만 두고 있지 않다. 그녀는 남성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전략적으로 자신의 불가항력적인 면을 변론하고, 자신의 행동과정에서 명예를 최우선시하지 않고 행한 행동이 없었음을 강조한다. 즉 남성들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비난에 직면해서 그로부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그동안 그녀가 헌신하고 맹목적으로 지켜왔던 그들의 권위와 명예를 다시금 전면에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의 자결은 책임을 인정하는 문책의 성격이 아니라 남성들의 ‘명예 지키기’를 행동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아쇠의 기능을 한다.

루크리스의 자결을 명예회복을 공론화시키는 기회로 삼는 인물은 바로 브루터스(Brutus)이다. 아내를 잃은 남편 콜라티누스나 딸을 잃은 아버지가 겪어야 하는 통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을 수 있는 부루터스는 그녀의 주검을 로마의 정치구조와 국가적 가치를 재정비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기회를 잡은 그는 갑자기 상반된 인물로 변하는데 시인은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로마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평가하였다.
 웃긴 바보들이 왕과 함께 있듯이
 장난스러운 말투와 미련한 일을 얘기하기 위해

He with Romans was esteemed so
as silly jeering idiots are with kings,
For sportive words and utt'ring foolish things.

그러나 이제 그는 그 피상적인 습관을 버리고,
사려 깊은 그를 변장시켜준,
그의 짐짓 오랜 숨겨진 지혜를 사려 깊게 무장한다.
콜라티누스의 눈에 고인 눈물을 멈추게 하기위해,
“이 불쌍한 로마인들, 일어나시오!
심연을 감추었던 내가, 바보 취급당하던 내가,
이제는 당신들의 오랜 경험적 지혜를 이끌겠소이다.

But now he throws that shallow habit by,
Wherein deep policy did him disguise,
And arm'd his long-hid wits advisedly,
To check the tears in Collatinus' eyes.
“Thou wronged lord of Rome,” quoth he, “arise!
Let my unsounded self, suppos'd a fool,
Now set thy long-experienc'd wit to school. (1811-20)

브루터스의 이러한 급격한 변신은 루크리스가 원했던 복수의 실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의 주도하에 이어지는 복수는 순수한 복수의 차원을 벗어나는 것이다. 시인은 복수의 순수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그의 급변신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가 슬픔과 충격에서 미쳐 벗어나지 못한 콜라티누스에게 ‘그런 어린애 같은 성정(such childish humour)’을 떨쳐 버리고 복수의 맹세를 재촉하는 것은 자신을 이미 복수의 대행자로 공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브루터스 일행은 맹세를 마친 뒤 루크리스의 시신을 운구하여 로마인들이 타르킨의 만행을 목도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여기서 이 시의 초반에 대두된 ‘공개하기(publishing)’의 문제가 다시 대두된다. 콜라티누스의 ‘공개하기’의

해 루크리스의 아름다움이 노출되었고 타르킨의 욕정이 증폭되고 실행되었었다. 이제 브루투스 일행의 시신 ‘공개하기’에 의해 타르킨의 만행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정치권력과 구조 개혁을 실행시킬 것이다. 브루투스는 동료들의 맹세를 끌어내기 위해 루크리스의 결백과 무고한 희생을 역설하면서 동시에 로마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타르킨이 루크리스를 공격하기 위해 로마 군사 기강과 명예를 의도적으로 고양시킨 것을 고려하면, 브루투스가 고양하고 있는 로마의 총체적 가치는 기존의 정치 질서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비춰진다. 한 가지 사건의 발단부터 결말에 이르는 순차적 과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른 사건을 예견할 수 있도록 복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두 사건의 큰 순환 고리 안에서 과연 루크리스 자신의 시적 정체성과 존엄성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IV.

루크리스는 생존 시에도 그녀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보여지고 염탐되고 있었으며, 그녀가 잠들어있는 동안에도 타인에 의해 보여지는 노출의 상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자신의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조차도 보여지기가 이루지고, 죽은 후 마저도 그녀의 육체는 정치적 명분을 위해 보여지는 도구가 된다. 그녀의 길쌈 짓는 정숙한 모습은 남편의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개되고, 일상적인 아름다움과 침실에서의 모습은 타르킨의 욕정의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되고, 그녀의 시신은 남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명분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물로 공개된다. 총체적으로 모든 시적 인물들이 명예의 문제에 몰입하여 이를 실현하고 구현하기 위해 전념하지만, 루크리스의 자결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아무도 구체적으로 명예의 근본적인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과 연관되어있는 남성들의 세계에서 자신의 시신이 없이는 어떠한 명예도 구체적으로 회복될 수 없음을 간파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결하기 직전까지 남편을 충분히 설득하고 복수의 명분을 지나치게 상세히 설명하고 복수 실행의 다짐을 받아낸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수는 남편이 아닌 제3의 인물 브루터스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그녀의 명예 회복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이고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녀의 죽음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필립과 베리(Philippa Berry)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시를 헌정 받은 써담튼 백작은 공화주의 사상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이 시의 주제로 이를 선택한 것은 보통 그러한 관심을 보여준다. 이는 물론 루크리스의 죽음이 타르킨의 몰락과 함께 로마의 왕권 체제의 막을 내리게 했으며 주니어스 부르터스에 의해 로마 공화국의 건립을 야기 시켰기 때문이다. 아마도 정치적 편의상의 이유로 시인의 서사와 공화주의 정치와의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시에 나타나 있지는 않은 점은 의미 있는 대목이다.

The Earl of Southampton, to whom the poem is dedicated, is known to have been interested in republican thought, and Shakespeare's choice of subject matter for his poem naturally suggests such an interest, since it was of course Lucrece's death which caused the end of Roman kingship with the downfall of the Tarquin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oman republic by Junius Brutus. Significantly, the connection of Shakespeare's narrative with republican politics is never directly stated in the poem presumably for reasons of political expediency. (34)

베리에 따르면, 이 시적 사건이 실제로 역사에 끼쳤던 정치적 영향력을 별개로 하더라도, 루크리스의 자결과 연관된 정치적 파장은 상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셰익스피어가 자칭 장중한 시라고 일컬었던 『루크리스의 능욕』에서는 명예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지만 그것의 실현은 지연되고 전가되고 있다. 권력의

과 정치적 지위를 확보한 남성들만의 세계에서 명예의 문제는 여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남편은 아름답고 정숙한 아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빌어 고귀한 남성으로서 명예를 추구하고 여성의 사적 공간을 공개함으로써 동료들의 추앙을 이끌어낸다. 귀족의 아내이자 친족의 아내인 루크리스를 능욕하는 최고의 권력가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투하는 모습으로 가장한다. 그리고 이 두 남성의 명예와 더불어 가문과 후대에 남을 진정한 명예의 문제는 모두 루크리스의 몫으로 남는다. 그들과 달리,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결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강구하지 못한다. 남편과 권력자에 의해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죽음을 택하지만 그것은 제 3의 권력자를 양산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뿐이다. 셰익스피어의 이 ‘장중한 시’는 남성들이 힘과 명예를 지키려는 권력구조에서 여성의 몸이 도구화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의 몸을 이용하여 남성들은 욕구뿐 만 아니라 명예까지 추구하고 있지만 루크리스의 명예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인 용 문 헌

- 박우수. 「여성에게 언어가 있는가: 『루크리스』와 재현의 실패」. *Shakespeare Review vol. 37 no. 2 (Summer 2001)*: pp.281-300.
- Shakespeare, William. *The Poems* Ed. F. T. Prince. London: Methuen. 1960.
- Bevington, David. Ed. *Antony and Cleopatra*. New York: Cambridge UP. 2004.
- Allen, D. C. “Some Observations on *The Rape of Lucrece*”. *Shakespeare Survey 44 (1992)*: pp.89-98.
- Berry, Philippa. “Woman, Language, and History in *The Rape of Lucrece*.” *Shakespeare Survey 44 (1992)*: pp.33-39.
- Kerrigan, John. “Keats and *The Rape of Lucrece*”. *Shakespeare Survey 41 (1988)*: pp.103-118.
- Finemsn, Joel. *Shakespeare's Perjured Eye*. Berkely: U. of California P. 1986.

Abstract

The Matter of Honour and A Woman's Body in *The Rape of Lucrece*

Kim Soojin

The meaning of honour in *The Rape of Lucrece* is not a kind of fixed or ideal conception. Honour is the value most Romans try to pursue and possess. But specially, to Tarquin, its meaning is changeable and alternating according to his purposes. Honour and pride is the motif of Tarquin's coming back to Rome from Ardea to have Lucrece after listening to Collatines' publishing. He wants to make sure he is the one who can possess the most valuable thing, Lucrece. When he is about to enter her chamber, he plays the role of a young and brave soldier whose captain is affection. He tries to make his going forward look heroic and honorable. But Shakespeare describes it comic and humorous and deconstructs his dignity and honor which Tarquin intends to exalt desperately.

When he forces Lucrece to surrender to his lust, honour is the most credible threat to her. But this time, it is not his honour but hers, her husband's and children's. While Tarquin is convinced that honour can be traded off whenever he needs, honour is not a changeable alternative any longer when he talks about it to her; on the contrary, it should be protected and kept from violence at any cost or risk.

After he flies away from Lucrece's chamber, she alone has to take all the responsibility for being dishonorable, despite herself. She has no way to keep herself secret or private or honorable, for she has been always the object of men's gazing. Her exposure to men, first by her husband, next by

Tarquin, drives her to be raped, that is, men's stealthy peeping results in totally destroying her honour and chastity. Ironically, more than ever, this is the moment she is most required to be a chaste and sovereign wife. She is aware that there is no breakthrough to get back her honour except killing her body and devoting it to her kinsmen. Her dead body is going to be used to retrieve men's lost honour, not hers. They are planning to carry her dead body through Rome for every Roman people to watch and find out Tarquin's brutality. It is the final exposure of tainted body that Brutus needs to achieve his republican aim. Her very private body of honour is forced to become the public body of politics. Shakespeare seems to neglect to ensure her a private and solid fortress, allowing her to be watched and to be exposed, but he does not let men's manipulated pride and honour showed to the full. The more they pursue their own honour, the more they get vanity. Men's honor is thought prior, but in order to achieve their value, the body of Lucrece works as a mediator. In the process, Lucrece's private body is erased out into the political sphere of public 'publishing'.

Key words : Shakespeare, honour, body, woman

셰익스피어, 명예, 몸, 여성

논문접수일: 2009. 4. 27

심사완료일: 2009. 5. 20

게재확정일: 2009. 5. 30

이름: 김 수 진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영문학과

주소: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e-mail: 0982sjk@hanmail.net